

차 례

Contents

이슈와 진단

충남 시군의 대중국 수출입 구조변화와 시사점 : 1차 산업	02
----------------------------------	----

중국 지역별 정책 동향

1. 구이저우성, 도농주민 소득 증가 대책 시범 방안 발표	14
2. 산둥성, 르자오종합보세구(日照綜合保稅區) 설립 확정	16
3. 쓰촨성, 농식품가공단지 건설 강력 추진	18
4. 장쑤성, 문화와 여행의 융합 촉진	20
5. 중국 지방정부 국제 교류 동향	22

현대중국의 이해

문화대혁명의 발동	25
	26

충남 속의 중국

강경의 소중한 역사, 강경화교학교	37
	38

충청중국포럼 소식

제32회 충청중국포럼 소식	43
	44

발간목록

	46
--	----

이슈와
진단

충남 시·군의 대중국 수출입 구조변화와 시사점 : 1차 산업

송영현·전춘복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2000년대 이후 중국은 충남 1차 산업 분야의 주요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충남-중국 간의 1차 산업 교역현황을 다룬 지난호에 이어, 이번 호 이슈와 진단에서는 충남 시·군-중국 간의 1차 산업 교역현황을 다룬다.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농, 축, 임, 수산업 분야의 충남 시·군-중국 간 수출입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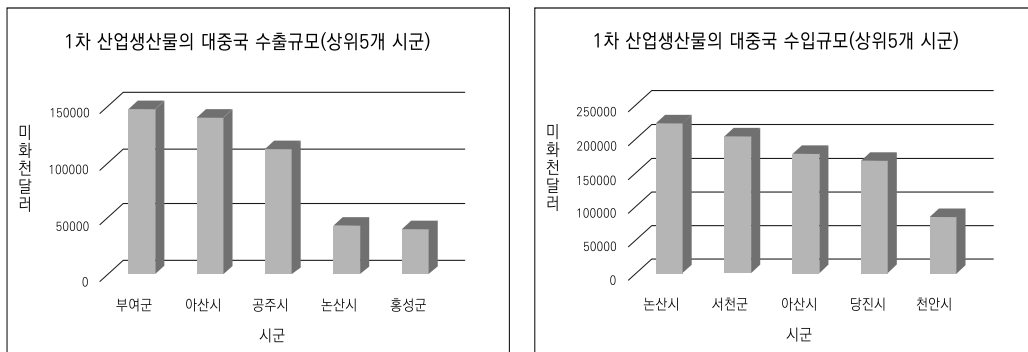
1. 충남 주요 시·군 1차 산업 생산물의 대중국 수출입 기본구조

- 2000-17년 충남 시·군별 1차 산업 생산물의 대중국 누적수출 규모를 살펴본 결과, 상위 5개 시·군의 수출액이 충남도 전체 수출액의 약 60%를 차지했다.

대중국 수출규모가 큰 충남 시·군은 부여, 아산, 공주, 논산, 홍성 등이며 이들의 2000-17년 누적 수출규모는 미화 약 4,070만-1억 4,700만 달러로 나타났다. 특히 부여, 아산, 공주의 수출규모가 상당히 큰 편으로 나타났다.

- 한편, 2000-17년 충남 시·군별 1차 산업 생산물의 대중국 누적수입 규모를 살펴본 결과, 상위 5개 시·군의 수입액이 충남도 전체 수입액의 약 37%를 차지했다.

대중국 수입규모가 큰 충남 시·군은 논산, 서천, 아산, 당진, 천안 등이며 이들의 2000-17년 누적 수입규모는 미화 약 8,460만-2억 2,540만 달러로 나타났다. 1차 산업생산물의 대중국 수입은 수출에 비해 시·군별로 고르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충남 시·군 1차 산업 생산물의 대중국 수출입 규모(2000-17년 누적)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 활용하여 저자 작성

주. 수입의 한계로 천안시, 서산시, 예산시, 아산시 등 시·군의 일부년도 데이터 누락됨.

- 한편, MTI¹⁾ 2단위 대분류 품목별로 대중국 수출규모 추이변화를 살펴본 결과,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부여, 공주, 아산 등 농산물 수출액 상위 시·군²⁾의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이후 급감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논산, 서천, 홍성 등 대중국 농산물 수입액 상위 시·군의 수입은 증가세와 감소세를 반복하여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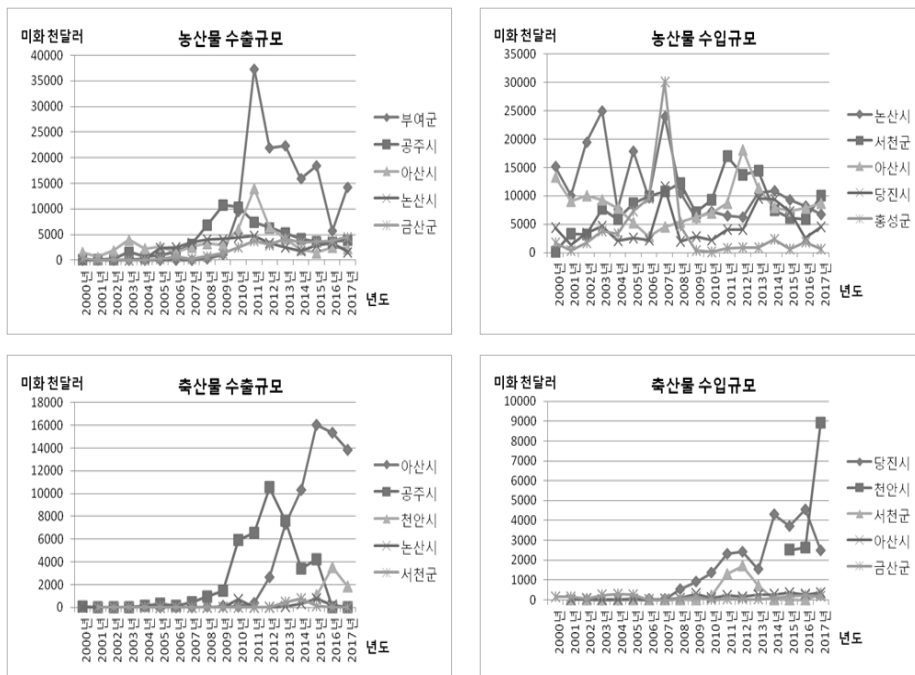
2000-17년 기간 동안 부여의 수출은 급증 후 급감하였으며 이는 인삼류의 대중국 수출규모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여는 2010년 대중국 농산물 수출액이 미화 약 4,000만 달러에 이르렀으나 이후 급감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동기간 동안 농산물 수입액 상위 5개 시·군 중, 홍성, 논산 등지에서도 수입규모가 급변하는 양상을 보였다.

- 2000년대 들어선 이후 대중국 축산물 수출액 상위 5개 시·군 중 아산, 공주 등의 연도별 수출규모는 상당히 큰 편이었으나, 아산은 2010년대 중반 이후, 공주는 2010년대 들어선 이후 수출규모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냈다. 대중국 축산물 수입액 상위 5개 시·군 중 당진, 천안 등에서는 수입 증가세, 서천에서는 감소세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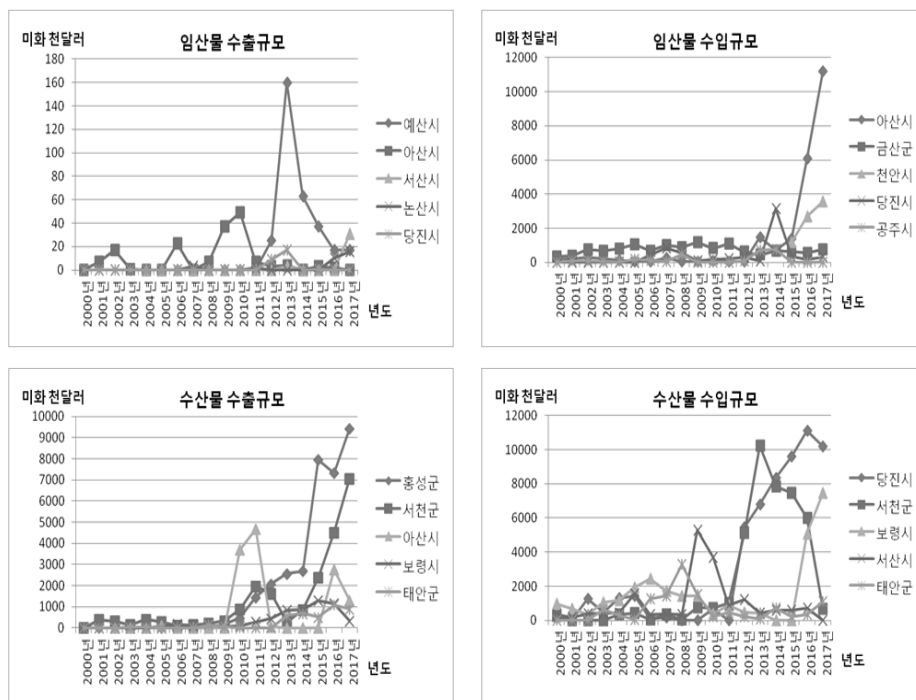
아산은 2015년 한 때 미화 약 1,600만 달러의 수출규모를 달성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우유, 분유 등 낙농제품의 수출 증가에 기인한다.

천안, 당진의 수입 증가는 충전재용 솜털 등 모류(毛類) 수입의 증가와 관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 1) MTI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가 우리나라의 산업별 수출입 통계를 분석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관세율 책정 및 관세부과 측면의 장점을 가진 HS코드와는 달리, 산업·경제 측면에서의 무역 통계 분석에 유리하다
- 2) 2000-17년 기간 동안 발생한 누적 수출액 또는 수입액 기준이다.

- 2000년 이후 대중국 임산물 수출액 상위 5개 시·군의 수출 변화폭은 전반적으로 크지 않았다. 한편, 동기간 대중국 임산물 수입액 상위 5개 시·군의 수입 변화 폭도 크지 않았다. 단, 아산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수입 증가세가 확연히 나타났다.
2000-17년 기간 동안 임산물 수출액 상위 5개 시·군의 전반적인 수출규모는 상당히 작은 편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0년대 중반 이후 아산의 수입규모 증가세가 확연한데 2017년 수입액은 미화 1,100만 달러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충남 임산물 수입액의 약 70%를 차지한다.
- 2000-2017년 홍성, 서천, 보령 등 수산물 수출액 상위 5개 시·군에서 전반적으로 수출 증가세가 나타났으며, 특히 2010년 이후 홍성, 서천 등에서 증가세가 확연했다. 한편, 동기간 대중국 수산물 수입액 상위 5개 시·군 중 당진, 보령은 2010년대 이후 수입 증가세가 나타났다.
2017년 홍성, 서천의 수출총액은 미화 1,640만 달러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충남 전체 수산물 수출액의 약 7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2017년 보령의 대중국 수출은 다소 주춤했으나 201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2017년 당진, 보령의 수입액은 미화 1,760만 달러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충남 전체 수산물 수입액의 약 90%를 차지한다. 수산물 수입액 상위 5개 시·군 중, 서천, 서산, 태안 등에서는 수입 증가세와 감소세가 반복되었다.



〈그림 2〉 충남 주요 시·군 농, 축, 임, 수산물의 대중국 수출입 규모(2000-17년, 상위 5개 시·군)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 활용하여 저자 작성

주: 수집의 한계로 천안시, 서산시, 예산시, 아산시 등 시·군의 일부년도 데이터 누락됨.

II. 세부품목별 수출입구조 변화와 특징

- 본 장에서는 농수산물 세부품목별로 충남 시·군의 대중국 수출입구조가 어떻게 변화해왔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 호 이슈와 진단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충남 전체 기준 수출입 규모 상위 3개 농, 수산물 세부품목의 교역구조 변화와 특징을 시·군 단위에서 분석하도록 한다.

앞 장에서 도출한 2000-17년 기간 농, 수산물 수출입 누적규모가 큰 상위 5개 시·군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축산물과 임산물의 경우 세부품목별로 정확한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 농산물 세부품목별 수출입구조 변화와 특징

- 충남 농산물 세부품목 중 기호식품, 농산가공품, 산식물 등 3대 대중국 수출품목을 대상으로 수출구조를 분석하였다. 기호식품의 경우, 부여, 금산 등을 위주로 수출이 이뤄졌으며 2010년대 초반까지 수출 급상승세를 보이다 2011년을 기점으로 급락세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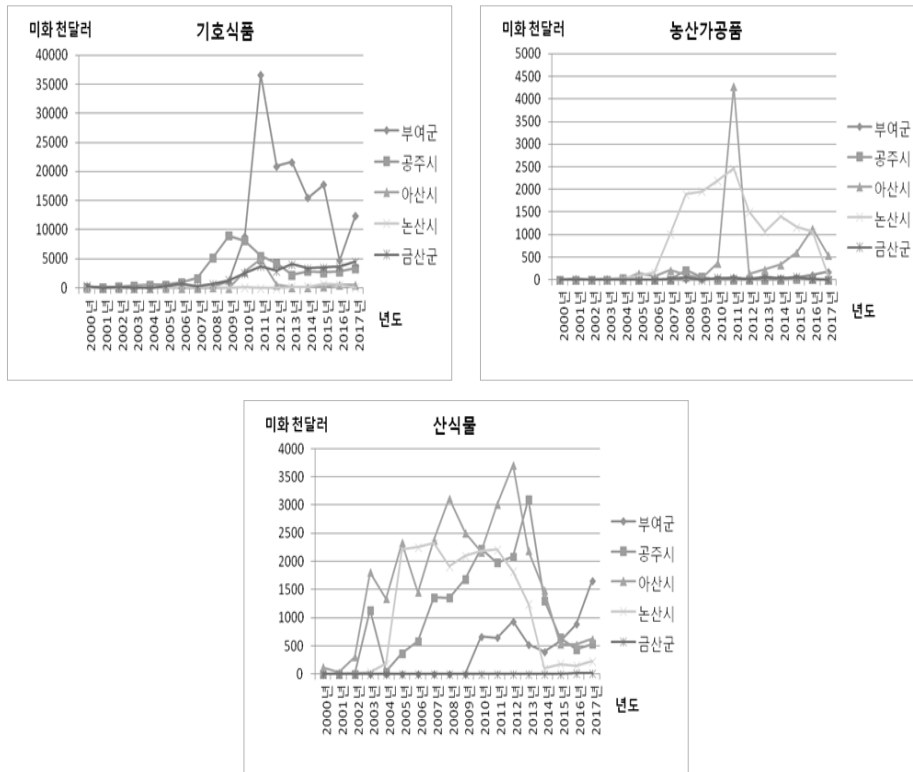
국내 최대 인삼제품 생산업체의 제조공장이 있는 부여는 충남의 기호식품 수출을 선도하고 있었다. 또한, 충남의 주요 인삼재배지역인 금산 등의 수출액도 상당히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2011년 부여 기호식품의 대중국 수출액 규모는 미화 3,600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중국 인삼업의 급성장 등 요인으로 인해 2011년 이후 수출 증가세가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최근 들어 다시 수출액이 늘고 있으나 아직 전성기의 수출수준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농산가공품의 경우 아산, 논산을 위주로 중국 수출이 이뤄졌다. 기호식품과 마찬가지로 2010년대 초반까지 수출 상승세를 보이다 이후 수출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대기업 식품공장이 입지된 시·군을 중심으로 농산가공품의 중국 수출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외 동종기업 간 경쟁 심화, 현지 가공공장 설립 등 요인으로 2010년대 들어선 이후 수출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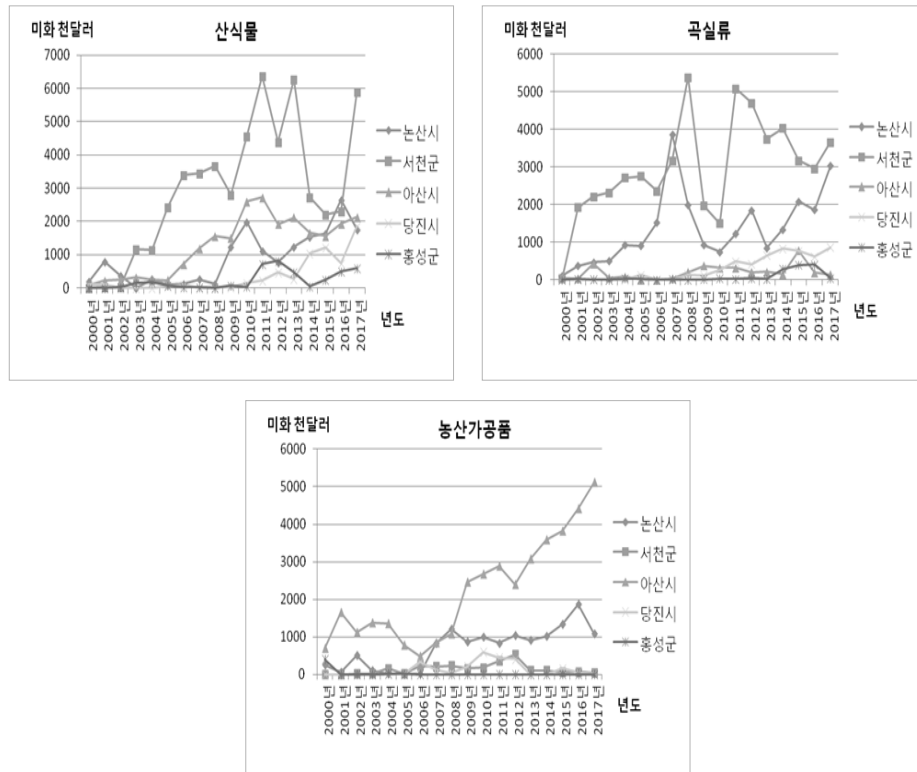
- 산식물의 경우 아산, 공주, 논산, 부여 등 다양한 시·군에서 대중국 수출이 이뤄졌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선 이후 부여를 제외한 4개 시·군의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3> 주요 시군·품목별 대중국 수출현황(농산물)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 활용하여 저자 작성

- 한편, 충남 농산물 세부품목 중 산식물, 곡실류, 농산가공품 등 3대 대중국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수입구조를 분석하였다. 산식물의 경우, 2000년 이후 서천, 아산, 논산 등 다양한 시·군에서 꾸준히 수입이 이뤄지고 있다. 수입의 상승·하락세가 반복되고 있지만, 2000년 이후 수입액은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 곡실류의 경우 논산, 서천, 당진 등을 중심으로 대중국 수입이 이뤄졌다. 농산가공품의 경우 아산, 논산 등에서 수입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들어선 이후 현재까지 상기 지역들의 곡실류, 농산가공품 대중국 수입액은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단, 서천 곡실류의 경우 2011-16년 동안 감소세였으나 최근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그림 4> 주요 시군·품목별 대중국 수입현황(농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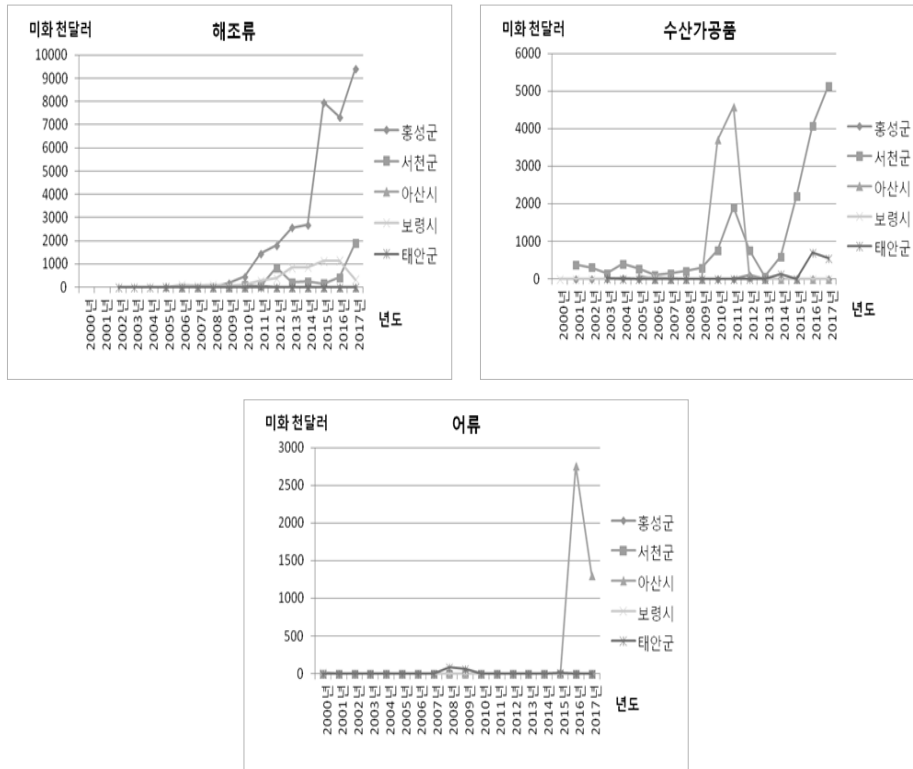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수산물 세부품목별 수출입구조 변화와 특징

- 충남 수산물 세부품목 중 해조류, 수산가공품, 어류 등 3대 대중국 수출품목을 대상으로 수출구조를 분석하였다. 해조류의 경우, 홍성을 위주로 수출이 이뤄졌으며 보령, 서천 등의 수출액도 적지 않은 편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들어 현재까지 안정적인 수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김 수출량 증가에 따른 결과이다. 홍성의 2017년 해조류 대중국 수출액 규모는 미화 약 940만 달러로, 이는 동년 충남 전체 해조류 중국 수출액의 8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 수산가공품의 경우 서천, 아산, 태안 등을 위주로 중국 수출이 이뤄졌다. 수산가공품 대중국 수출액 상위 5개 시·군 중, 서천이 지속적인 수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어류, 염장류 가공식품 등의 수출액이 증대되었으며 이 중 서천의 수출액이 제일 많은 편이다. 수출구조 역시 타 시·군에 비해 안정적이고, 2017년 수산가공품 대중국 수출액 규모는 미화 510만 달러에 육박한다.

아산의 경우 2010년을 전후하여 수산 가공품 수출액이 급증·급감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 어류의 경우 아산을 중심으로 대중국 수출이 이뤄졌다. 2015년 아산의 어류 수출이 급증 하였으나 2016년부터 다시 수출액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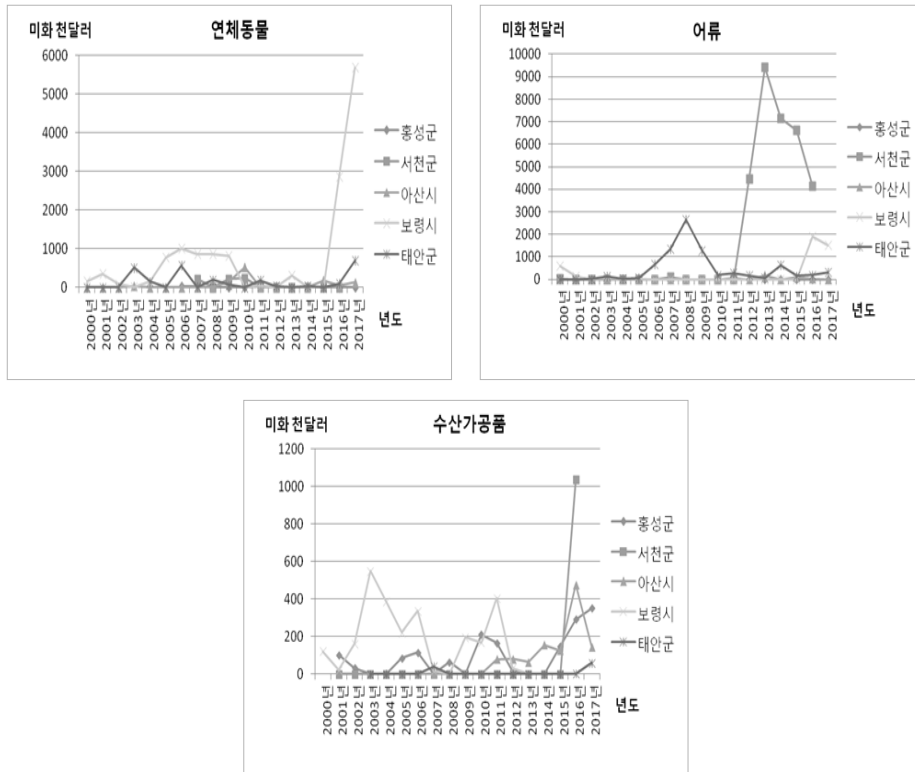


<그림 5> 주요 시군·품목별 대중국 수출현황(수산물)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 활용하여 저자 작성

- 한편, 충남 수산물 세부품목 중 연체동물, 어류, 수산가공품 등 3대 대중국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수입구조를 분석하였다. 수산물 수입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연체동물의 경우, 보령을 중심으로 수입이 이뤄지고 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수입액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산 오징어와 문어 가격 상승과 중국산 오징어와 문어 등에 대한 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 어류의 경우 서천을 중심으로 대중국 수입이 이뤄졌다. 수산가공품의 경우 서천, 홍성, 아산 등에서 수입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 어류의 대중국 수입량은 2013년을 전후하여 급증·급감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반면 수산가공품의 경우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대중국 수입액 상위 시·군들의 수입량이 단기적인 증가·감소 추세를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 6> 주요 시군·품목별 대중국 수입현황(수산물)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 활용하여 저자 작성

주: 서천의 경우 통계 미비로 인해 2017년 자료는 불포함.

Ⅲ. 종합 및 시사점

- 분석을 통해 충남 시·군별 1차 산업 생산물의 대중국 수출이 특정 시·군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입의 경우 비교적 다양한 시·군에서 폭넓게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000-17년 충남 시·군별 1차 산업 생산물의 대중국 누적 수출·수입 규모를 살펴본 결과, 수출규모 상위 5개 시·군의 수출액이 충남도 전체 수출액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규모 상위 5개 시·군의 수입액은 충남도 전체 수입액의 약 37%를 차지했다.
- 충남 시·군의 농수산물 세부 품목별 대중국 수출입구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농산물 세

부품목별 수출구조 분석결과, 기호식품과 농산가공품 수출이 특정 시·군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2010년대 초반까지 수출 상승세를 보이다 이후 하락세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산식물의 경우 2010년 이전까지 다양한 시·군에서 대중국 수출이 활발히 이뤄졌으나 2010년대 들어선 이후 시·군별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실정이다.

농산물 세부품목별 수입구조 분석결과, 산식물의 경우, 2000년 이후 다양한 시·군에서 꾸준히 수입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곡실크류, 농산가공품의 경우 역시 2000년대 들어선 이후 현재까지 대중국 수입액 상위 대부분 시·군에서 수입규모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수산물 세부품목별 수출구조 분석결과, 해조류, 수산가공품의 수출이 특정 시·군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2010년대 중반까지 전반적으로 수출 상승세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어류의 경우 2015년에 아산을 중심으로 수출 급증 하였으나 2016년부터 수출액이 다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수산물 세부품목별 수입구조 분석결과, 보령을 중심으로 수입이 이뤄지고 있는 연체동물의 경우 2010년대 중반 이후 수입량이 폭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산가공품의 경우 비교적 다양한 시·군에서 대중국 수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대중국 수입액 상위 시·군들의 수입액은 단기적인 증가·감소세를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서천을 중심으로 수입이 이뤄지고 있는 어류의 경우 2013년을 전후하여 수입 급증·급감세가 연이어 나타났다.

- 분석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대중국 수출 절대량은 많은 편이나 수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기호식품, 농산가공품의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정 시·군 경제에서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큰 바, 수출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지역경제에 상당한 타격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상승세를 이끌어 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중국의 소비계층이 점차 다양화, 세분화 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중국인 소비자 맞춤형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중국에서 고품질, 고가 상품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가격, 품질 두 측면 모두에서 세분화된 상품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 특정 시·군, 특정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수출구조에서 탈피해, 여러 시·군의 다양한 농수산 특화상품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하다.

충남의 여러 시·군이 중국을 농수산 식품 배후 수출시장으로 삼을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하다. 예산 딸기, 서천 쌀 등 대외경쟁력 높은 양질의 신선농산물을 활용하여 중국 소비자를 공략할 수 있는 가공식품을 만들고, 이를 수출상품화 하는 방안 마련 요구된다.

- 대중국 농수산물 수출에 대한 업계 종사자의 인식개선 및 수출절차에 대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사드갈등 발생 이후 충남을 비롯, 우리나라 농수산물에 대한 중국 통관절차가 까다로워졌으며 이에 따라 중국 수출 자체를 터부시하는 경향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드 갈등으로 발생한 문제들이 점차 해결되고 있고 통관 등 수출절차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가장 큰 배후시장인 중국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여전하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중국은 여전히 충남도, 충남 시·군 농수산물의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 중 하나이다. 업계 종사자들이 대중국 농수산물 수출에 대한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중국 수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충남도, 산하 시·군 차원의 관련 교육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양중 외(2015),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충남의 대응방안-대중국 수출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충남연구원.
대전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대전세종충남 수출 지원협의회(2018), 2018 대전·세종·충남 수출지원시책, 대전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대전세종충남 수출 지원협의회.
문병기·이도형(2018), 수출 강소기업의 성장전략 및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 trade focus, 2018년 1호.
양평섭·박민숙(2016), 무역특화지수로 본 중국의 산업발전단계 변화와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제16권 20호.
kotra(2018), 2017년 대중수출 평가와 2018년 전망, kotra.

중국 지역별 정책동향

- ▶ 1. 구이저우성, 도농주민 소득 증가 대책 시범 방안 발표
- ▶ 2. 산둥성, 르자오종합보세구(日照綜合保稅區) 설립 확정
- ▶ 3. 쓰촨성, 농식품가공단지 건설 강력 추진
- ▶ 4. 장쑤성, 문화와 여행의 융합 촉진
- ▶ 5. 중국 지방정부 국제 교류 동향

전춘복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1

구이저우성, 도농주민 소득 증가 대책 시범 방안 발표

- 2018년 7월 13일, 구이저우성정부 판공청(貴州省人民政府辦公廳)에서 『도농주민 소득 증가 대책 시범 방안(貴州省開展城鄉居民增收綜合配套政策試點實施方案)』(이하 <방안>)을 발표하였다. <방안>은 2020년까지 도시·농촌지역의 누적 신규 취업자 수를 220만 명으로 증가시키고, 현 제도 기준 농촌 빈곤가정 제로화를 실시하며, 빈곤 현, 향진, 촌을 모두 빈곤에서 탈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1> 구이저우성 『도농주민 소득 증가 대책 시범 방안』의 주요 목표

구분	세부 목표
목표	① 도시와 농촌의 취업률을 점차 확대시켜 2020년까지 신규 취업자수 220만 명으로 증가 ② 실제 실업률과 등록실업률을 각각 5.5%와 4.2%이하로 통제 ③ 주민소득과 경제성장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와 농촌주민소득 성장률을 각각 8%, 10%로 유지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소득 비율 3:1 수준 유지

중점사업

<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점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술 집약형 인력 장려 실시

- 기술직 인력을 위한 장려체계 마련
 - 전문기술원, 전문대학, 4년제 본과 학력 소유자, 기술학교나 중등전문학교 졸업자가 심사를 거쳐 관련 자격을 얻으면 기업의 보조설계사, 설계사, 고급설계사 기준에 맞게 복지혜택을 제공한다. 2019년에 1~2개 성(省) 산하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제도를 마련하고 관련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 자격증, 학력 등 인증체계 마련
 - 전일제 고급기술학교, 기술사학원 졸업자가 공무원시험 응시, 기업체 채용 지원 등 방면에서 전문대나 본과 졸업자와 비슷한 수준의 대우를 받도록 하고 별도로 취업보조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 기술직 인력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마련

- 기술인재경연대회 3년 행동계획(技能人才競賽三年行動計劃)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구이저우 장인(貴州工匠)』을 양성한다. 기업은 기술인력에 대한 대우체계를 설계사나 고급설계사와 동등하게 설정하고 호구이전, 주택구매, 자녀학자금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② 신흥 직업 농민 장려 실시

- 직업 농민을 양성하고, 산지특색이 있는 고효율 농업을 발굴하며, 빅데이터와 농업을 긴밀히 결합시키고, 개혁을 통한 소득증대 활동을 격려한다.
 - 2020년까지 500개 농업기업 정보 빅데이터화, 50개 농업물류기지 육성, 200개 농업기업 제품에 대한 품질 추적시스템 장착, 촌 단위 전자상거래 서비스센터 설립 등을 추진한다.

③ 연구인력에 대한 장려 실시

- 과학기술분야 경비관리 강화
 - 연구기관에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지배권 부여, 직접 연구비 예산에 대한 심사기준 완화로 인재혁신분야 지원을 실시한다.
- 연구결과 실질 활용 정도에 따른 분배체계 완비
 - 지식재산권의 창조, 보호, 운용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연구결과의 실제 활용 정도에 따른 성과배분으로 과학기술인력의 적극성, 자발성을 제고시킨다.

④ 중소기업 창업자 장려 정책 실시

- 상업제도 개혁 심화
 - 기업자본금 인증제, 등기등록제도 간소화 개혁 등 제도를 추진하고 기업신용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한다.
- 중소기업 지원 확대
 - 2019년, 정부구매 분야에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귀향 농민공, 군인, 실업자, 빈곤가정, 장애인의 창업을 유도하며, 이러한 지원의 수혜대상을 2020년까지 6만개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 성과이익 분배체계 설정
 - 대기업이 중소 창업자와 창업성과를 공유하도록 장려하고 중소 창업자의 창업혁신능력을 증대시킨다.
 - 2019년에 문화창의 분야의 혁신성과에 대한 보호방법을 제정하여 상업모형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도모한다.

⑤ 경제활동이 가능한 빈곤계층 취업활동 장려 실시

- 산업육성을 통한 빈곤탈출 강화
 - 대기업, 합작사(지역경제조직, 시민경제조직), 농가(시민)가 연합하는 빈곤탈출계획 수립, 혁신이익 공유체계 마련, 마을과 회사 매칭 등을 통한 빈곤탈출 노력을 실시한다.
- 기초생활보장 분야와 취업연동 체계 수립
 -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초생활보장계층 관리, 빈곤계층 대상 교육훈련 계획을 마련한다.
- 최저생활보장 능력 향상
 - 4중 의료보장(四重醫療保障 : 빈곤가정의 환자가 4단계 의료보험 혜택 수급)제도를 보급한다.

⑥ 기업경영자에 대한 장려 실시

- 성내 국유기업의 관리자 장려 제도 재정비
 - 국유기업 대상 전문경영인 제도 마련, 공개채용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 내 중급관리자가 전문경영인에 도전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 민영기업가의 창업 격려
 - 대형 민영기업 중점 육성, 중소 민영기업의 창업경로 확대, 검찰장과 기업대표의 지속적인 좌담회 개최 등을 통해 비국유기업의 경영애로사항을 해소시킨다.

2

산둥성, 르자오종합보세구(日照綜合保稅區) 설립 확정

2018년 7월 10일, 르자오시는 지난 3년간의 신청노력을 거쳐 국무원으로부터 정식으로 르자오종합보세구 설립에 대해 확정받았다. 총 면적은 2.88km²이며, 산둥성 보세구 중 면적순으로 웨이팡(濰坊), 지난(濟南), 린이(臨沂), 둥잉(東營), 웨이하이(威海)보세구 다음이다. 앞으로 약 1년간의 건설과 검수과정을 거친 후 정식사용 단계에 진입한다.



<그림1> 르자오 항구 모습

자료 : 르자오일보(日照日報)

- **지리적 장점** : 르자오보세구는 전체 면적의 절반정도가 르자오항 내부에 위치하고, 항구지역에 철도가 개설되어있다. 이밖에 『산업단지와 항구 연결, 육로와 해로연결』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르자오보세구는 해안선에서 800미터 떨어져 있고, 건설 중인 쿠이산(奎山)고속철역과는 11km, 르자오공항과는 18km 떨어져 있어 육·해·공 교통이 모두 편리하다.
- **설립취지** : 보세가공·물류를 특색으로 하는 보세구를 건설하고 보세서비스 수준을 높여 향후 르자오시 대외개방 통로를 개척한다.
- **기능** : 보세구는 보세가공, 보세물류, 화물무역, 서비스 무역, 해안서비스 등의 기능을 하게 되며, 보세구내 제조기업은 원료를 수입하여 보세가공 후 재수출하거나 국내 판매를 한다. 또한 국내 원재료를 보세구에 반입하여 가공 후 수출도 가능하다. 보세가공분야는 국내 또는 해외 원료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중국 및 국제시장을 동시에 겨냥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넓은 기회를 제공한다. 보세구는 기업들에게 보세제품의 보관·배송과 수입·재수출을 위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해 물류비용 최저화와 기업이윤 극대화를 실현하도록 한다. 보세구에서 무역회사 등록이 가능해 기업들은 수출입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고, 세계 각지의 구입, 판매, 배송 등 영역에 진출할 수 있다. 보세가공, 보세물류, 화물무역 등 분야와 연관된 연구개발이나 설계, 제품테스트, A/S, 임대 등 서비스기업들도 국제해운센터, 구매센터, 화물보관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데 중국산원료는 세금환급, 수출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수도요금, 전기요금 감면 등이 있다. 보세구내 창고 이용 시 화물의 종류나 보관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 2015년부터 르자오시는 『개방적 도시』를 주 전략으로 보세구 신청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 제당업, 수산가공업 등 11개 업종과 보세물류 업종 19개,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업종 5개 등 총 35개 업종의 다수기업들이 보세구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3

쓰촨성, 농식품가공단지 건설 강력 추진

2018년 7월 25일, 쓰촨성 정부상무회의에서 『농식품가공단지 건설 강력 추진을 위한 의견(이하 〈의견〉)』이 통과되었다. 성, 시(주), 현(시, 구) 3급을 연동해 지역별로 농식품가공시범구를 건설하고, 우수 농식품가공단지와 특색 있는 농식품가공단지를 육성할 예정이다.

목표: 『의견』은 농업공급 구조 개혁, 농식품가공단지 건설을 강력 추진하여 2020년까지 200개 정도의 농식품가공단지를 건설하고 생산단지 능력 향상, 대기업 역량 강화, 혁신능력 제고, 지역발전의 선도자 역할 수행 등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표2> 『농식품가공단지 건설 강력 추진을 위한 의견』의 세부목표

항목	세부목표 (2020년까지)
생산단지 능력 향상	연도별 영업이익 기준 500억 위안 단지 2개, 100억 위안 단지 10개, 50억 위안 단지 30개 육성
대기업 역량 강화	생산량 기준, 1,000억 위안 기업 1개, 100억 위안 5개, 50억 위안 기업 10개 건설
혁신능력 제고	과학기술 혁신플랫폼 100개, 성급이상 기업기술센터 100개, 벤처기업 50개 이상 건설
지역 발전의 선도자	원재료생산기지와 물류산업 발전 촉진 농촌 1, 2, 3차산업의 유기적 결합 촉진

중점사업

① 각 단지별 생산품목의 분포 규정

- 청두평원경제구(成都平原經濟區) - 곡류, 유제품, 주류, 조미료, 과일채소류, 스낵류, 중약재 등 가공산업
- 환남경제구(川南經濟區) - 식음료, 곡류, 축산, 피망, 과일채소류, 차, 중약음료 등 가공산업
- 환동베이경제구(川東北經濟區) - 과일채료류, 곡류, 축산, 수산물, 천명삼, 누에뽕, 목본유 등 가공산업
- 판시경제구(攀西經濟區) - 초봄의 채소, 특색과일, 차, 누에뽕, 호두, 피망 등 가공산업
- 환시베이경제구(川西北經濟區) - 유제품, 과일채소류, 쌀보리 등 가공산업

② 성, 시, 현 3단계 연동을 통한 농식품가공단지 발전 촉진

성급단위에서는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표기업을 중점 육성하고, 시급, 현급 단위에서는 지방특색을 띤 개별기업을 육성한다.

③ 기반시설 건설 추진

수도, 전기, 가스, 통신, 도로, 폐수처리 등 기반시설 건설, 공장건축 표준 모델 개발 및 보급, 냉동물류와 건조시설을 갖춘 물류배송체계 마련, 교육훈련을 위한 공공시설을 마련한다.

④ 대외협작수준 제고, 투자유치 촉진

시장전망이 좋고, 부가가치가 높으며, 선도기능이 우월한 항목을 발굴하여 산업단지의 발전을 촉진한다.

⑤ 농업분야 『선도기업(排頭兵)』육성 사업 추진

- 농식품 가공단지 내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혁신연구능력이 있는 벤처기업의 발전을 지원해 산업단지의 종합적인 발전을 유도한다.
- 『중소기업 온라인 혁신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발판을 마련한다.

⑥ 기술혁신을 핵심 사업으로 설정

- 공공기술서비스시설, 연구중심, 실험실 등을 조속히 건설하고, 산, 학, 연이 공동으로 기술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 클라우드서비스, 빅데이터, 모바일서비스 등 새로운 기술을 적극 이용하여 『지능형 공장』, 『생산라인 전산화』사업을 추진한다.

⑦ 『찬자호(川字號)』가공 농식품 브랜드화 추진

- 찬지우(川酒), 찬차(川茶) 찬차이(川菜) 등 쓰촨의 대표적인 농식품 브랜드를 육성해 전통 가공농식품의 지명도를 제고시킨다.

⑧ 1, 2, 3차산업의 융합 발전 촉진

- 대기업과 합작사, 원재료 생산기지, 농가가 상생 발전하는 사업모형을 구축한다.
- 원재료 생산단지에 소수민족마을, 농업관광, 공업관광, 건강관광 등을 융복합하는 산업단지를 건설한다.

4

장쑤성, 문화와 여행의 융합 촉진

2018년 8월 2일에 열린 장쑤성 관광분야 공작회의(全省旅遊工作會)에서 2018년 1-6월 장쑤성 여행실적에 대한 외부 평가가 있었다. 전기 대비 13.5% 성장한 6,328.57억 위안의 관광 총수입 달성하였고, 전기 대비 9.5% 증가한 총 3.86억 명의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였다. 이러한 추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장쑤성은 문화와 여행의 융합을 촉진할 계획이다.



<그림2> 양저우 수서호(瘦西湖)



<그림3> 쑤저우 산탕거리(山塘街)

자료 : 중국사진백과(中國圖庫)

① 양질의 관광 프로그램 앞세워 여행객들의 소비유도

- 물은 장쑤지역 여행에 있어서 ‘혼(魂)’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4월 11일 난징과 상하이 두 도시 간에 정기 여객노선이 신설되었고 난징시여행위원회는 앞으로 강변 경관 조성, 양안 일체화, 야경 조성을 통해 빈장(濱江)수상관광브랜드를 육성할 계획이다.
- 또한 타지 관광객들은 모두 하나같이 장쑤성의 관광교통의 우수성을 극찬한다. ‘대교통(大交通)’과 ‘소교통(小交通)’의 연결은 『장쑤속도(江蘇速度)』를 아주 잘 표현해준다. 교통중심지, 관광객 집결 센터, 주요 관광지 등 대교통(大交通)의 시발지점에서는 대중교통노선과 관광버스 노선의 혼선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관광경찰지소 설립, 관광지 서비스센터 증설, 10분으로 고성 둘러보기 서비스지도 등 여행서비스를 제공하여 품질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동방수성(東方水城)』 쑤저우(蘇州)는 올해부터 『여행총입구(旅遊總入口)』 종합여행서비스 위챗공중계정을 통해 14가지 공공서비스와 쑤저우여행 3종 상품을 선보였는데 이미 팔로워 수가 30만을 넘었고, 관광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하였다.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아지니 관광객의

발걸음은 느려지고 만족도는 높아졌으며 관광경제는 활성화 되었다.



<그림4> 장쑤관광 위챗 플랫폼

자료: 저자 모바일 캡처 사진



<그림5> 종합여행서비스 체계

자료: 장쑤뉴스

② 문화와 관광의 융합 발전으로 관광의 다채로움 선사

● 장쑤성의 문화관광 분야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7월에 열렸던 성위원회 13기 4차 전체회의(省委十三届四次全会)에서 『문화관광산업의 감각을 키우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며, 대표성 있는 항목을 선출해 문화관광산업이 장쑤성 경제의 중요한 발판이 되게 한다』라고 발표하였다.

- 문화와 관광의 융합은 『천성일면(千城壹面: 개별 특징이 없이 비슷한 형태로 만듦)』현상을 회피해야 한다. 쑤저우의 옛 거리인 평강로(平江路)는 실크치파오가 유명한데, 이는 쑤저우특산물 실크와 자수문화(蘇繡文化)가 결합된 산물이다.
- 장쑤성은 여가휴식 공간, 문화교류 공간의 건설로 『슬로우 라이프(慢生活)공간』을 창출함으로써 관광객 재방문 기회를 창출하고자 한다.
- 홍색관광(紅色旅遊: 혁명과 전쟁 역사가 담긴 여행), 무형문화재관광(非遺旅遊), 무형문화재전습소(非遺傳習所), 문화유적전시관(古籍展示館) 등 문화교육자원을 관광프로그램에 도입하여 문화체험의 다채로움을 선사하고자 한다.



<그림6> 평강로 치파오가게와 장쑤성 지방극(呂剧) 교습소

자료: 장쑤뉴스

- 장쑤성여유국(省旅遊局)은 관광산업의 융합발전시범기지로서 향후 대중들의 관광소비를 새로운 이슈로 만들것이라 선언하였다.

5

중국 지방정부 국제교류 동향

① 쓰촨성 동향(충남과 우호교류 체결 : 2008. 9. 5)

우호 쓰촨(友好四川) 동경속으로 들어가다

-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을 맞아 쓰촨성과 일본의 교류협작과 경제무역을 한층 활성화 하고, 양 국가간 민심상통을 위하여 쓰촨성 인민대외우호협회와 일본 이토요카도유한회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우호 쓰촨(友好四川) 동경속으로 들어가다』 행사가 2018년 6월 16일부터 21일까지 이토요카도 동경지점에서 개최되었다.



<그림7> 쓰촨성 특산품 전시·판매전

자료 : 쓰촨성인민우호협회

- 이번 행사는 쓰촨성 인민대외우호협회 2018년 『우호 쓰촨(友好四川)』 해외활동의 일환으로 계획되었으며 『쓰촨의 놀라운 매력』을 주제로 쓰촨관광문화 사진전, 쓰촨 특색음식 시식회, 쓰촨 특산품 전시·판매전, 쓰촨 전통문화공연, 팬더 전시 등 5개 영역에 걸쳐 펼쳐졌다. 아름답고 향긋한 쓰촨의 자연경치, 맵고 얼얼한(麻辣) 쓰촨 고유의 맛, 변화무쌍한 변검마술과 써커스공연

을 통해 쓰촨의 매력을 충분히 발산하였다. 이번 행사에 방문했던 일본인들은 마파두부나 탄탄면과 같은 쓰촨음식에 대해서 감탄했고, 쓰촨의 자연풍경, 명승고적, 소수민족 풍속, 국보동물 판다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② 상하이시 동향(충남과 우호교류 체결 : 2008.11.3.)

제6회 한중일 아동 우호 미술전 개최

- 2018년 7월 28일, 상하이시 소년궁에서 한, 중, 일 3국의 상하이시인민대외우호협회, 일본사회교육단체(碧波會), 한국부산국제교류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6회 한중일 아동 우호 미술전』이 개최되었다.
- 『한중일 아동 우호 미술전』은 2013년을 시작으로 벌써 6회가 진행되었으며, 올해 미술전은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 하에 진행되었다. 각국 주최 측에서는 연초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 기관을 통해 공모와 선발을 거쳐 100개 작품을 선발하였으며 총 300개의 미술작품이 전시되었다. 개막식에서는 한중일 아동들이 각각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그림8> 미술전에서 그림그리기, 전통공연 연출 모습

자료 : 소후닷컴(搜狐)

③ 헤이룽장성 동향(충남과 자매결연 체결 : 2015. 1. 28)

헤이룽장성 성장이 타타르공화국 행정장관을 만나다

- 2018년 7월 11일부터 12일 이틀 간 왕원타오 성장은 성정부대표단을 이끌고 타타르공화국을 방문했다. 방문기간 중 행정장관과 회담을 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 흑룡강성 인민정부와 소련 연방 타타르공화국 무역통상, 과학기술분야 합작 협의(中華人民共和國黑龍江省人民政府與俄羅斯聯邦鞏固斯坦共和國政府關於經貿、科技和文化合作協議)』를 체결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조속히 헤이룽장성과 타타르공화국을 잇는 직항노선을 개통하고, 담당부서를 만들어 구체적인

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그림9> 레이룽장성과 타타르공화국 행정관 회담 진행

자료 : 헤이룽장성인민정부(黑龍江省人民政府)

참고문헌

- 貴州省人民政府, 貴州省開展城鄉居民增收綜合配套政策試點實施方案
http://www.gzgov.gov.cn/xwdt/djfb/201807/t20180716_1447190.html
 (검색일 : 2018년 7월 15일)
- 山東省人民政府, 日照綜合保稅區正式獲批
http://www.shandong.gov.cn/art/2018/7/10/art_2066_159937.html
 (검색일 : 2018년 7월 16일)
- 四川省人民政府, 關於大力推動農產品加工員區發展的意見
<http://www.sc.gov.cn/10462/10771/10795/12400/2018/3/7/10446616.shtml>
 (검색일 : 2018년 8월 1일)
- 江蘇省人民政府, 加速文旅融合, 旅遊發力“優質”拉長產業鏈
http://www.jiangsu.gov.cn/art/2018/8/2/art_60096_7771014.html
 (검색일 : 2018년 8월 6일)
- 四川省人民對外友好協會, “友好四川”走進東京--首屆“四川文化周”活動在日成功舉辦
<http://www.sifa.org.cn/article-630-1.html> (검색일 : 2018년 8월 6일)
- 上海市人民政府外事辦公室, 第六屆“中日韓友好兒童繪畫展”開幕 (검색일 : 2018년 8월 10일)
http://www.sohu.com/a/244006637_665334
- 黑龍江省人民政府外事辦公室, 王文濤訪問韃靼斯坦共和國並會見行政長官明尼哈諾夫
<http://www.hljfao.gov.cn/newsshow.php?cid=3&id=868&lanmu=1> (검색일 : 2018년 8월 8일)



문화대혁명의 발동

박인성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1966년 5월부터 1976년 10월까지 10여년간 중국 전국을 대혼란으로 몰아 넣은 문화파괴 대동란, 소위 “문화대혁명”을 직접 창안, 기획, 발동, 지휘한 자가 마오쩌둥이라는 건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방자료에 의지한 탓인 지, 중국내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아직도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는 문헌자료들이 적지 않다. 아무튼 마오쩌둥은 이 대동란의 공식 명칭(全称)을 “무산계급(无产阶级) 문화대혁명”이라고 작명했다. 마오쩌둥이 이 동란의 명칭에 왜 “문화”를 넣었고, 왜 문화 부문에서 발동시켰을까? 그가 생각하고 있던 “문화”는 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애당초부터 그가 자신의 권력 유지와 독재체제 강화 외에 문화에 대한 진지한 관심 같은 게 있기는 했을까?

마오쩌둥에 대한 비판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중국공산당 내부 문건에서조차 “문화대혁명”에 대해서는 “마오쩌둥이 발동하고, 반혁명집단에 이용되고, 당과 국가와 각 민족 인민에게 엄청난 재난을 가져온 내란을 발생시켰고, 신중국 건국 이래 당과 국가에 최대의 엄청난 좌절과 손실을 끼쳤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문구를 읽다 보면 왠지 할 말이 더 있지만, 당의 존속과 그 당의 당원으로서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꾀꾀 누르고 참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호에서는 이 같은 관심 속에서 마오쩌둥이 작명한 소위 “문화대혁명”이라 불리는 사건의 발생 배경과 주요 진행 경과를 고찰, 정리해 보고자 한다.

“문화대혁명”의 배경

1935년 1월 15일부터 17일 사이에 진행된 준이회의(遵义会议) 이후 중공중앙의 당권을 장악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이후 국가주석으로서 또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서 신중국에서는 최고 국가권력을 행사하고 있던 마오쩌둥이 신중국 건국 17년차 되는 해에 새삼스럽게 다시 “대혁명”이란 걸 발동시키겠다고 책략을 꾸민 이유와 배경이 뭘까? 마오쩌둥 자신의 말 대로라면, 자본주의의 부활과 복고를 방지하고, 당의 순결성을 유지 보호하고, 중국이 스스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길을 탐색하겠다는 것이었다. 또 “당중앙에 수정주의가 출현했고, 당과 국가가 자본주의 복고의 현실적 위험에 처했으므로, 결연한 조치와 공개적이고, 전면적으로,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광대한 군중을 발동하여야만 당과 국가생활 중의 어두운 면을 폭로할 수 있고, 주자파(走资派)에게 찬탈 당한 권력을 다시 탈취해 올 수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과거 수년간 주도하면서 추진한 정풍운동, 반우파투쟁, 농촌의 “4청(四清)운동¹⁾”과 도시의

1) 4청운동(四清运动)은 1963년~1966년 기간중, 중공중앙이 중국 전국의 도시와 농촌에서 추진한 사회주의 교육운동이다. 처음에는 정화(清) 대상이 농촌의 노동점수(工分), 장부(账目), 창고, 재물이었으나, 후기에는 도시와 농촌 모든 지역의 사상, 정치, 조직, 경제로 되었다.

“5반(五反)운동²⁾” 등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런 말을 하는 게 스스로 생각해도 맘에 걸렸던지, “그러한 과거의 의식형태 영역의 비판들은 모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평균 수준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 소위 “문화대혁명”의 발동과 진행과정 관련 공개된 자료들만이라도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마오가 내건 상기한 바와 같은 명분과 언설들은 기만이고 사기라는 걸 쉽게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사진 1> 반우파투쟁대회 광경

그렇다면, 마오쩌둥이 소위 “문화대혁명”을 발동하고 조종하고 지휘한 실제 배경과 동기는 무엇일까? 필자의 추측으로는, 마오 스스로 독선적으로 밀어 부친 대약진운동과 합작화, 인민공사화 등의 “농촌사회주의” 급진 좌경노선이 처참하게 실패하면서 경제를 파탄내고 재난성 대기근을 초래하며 수천 만 명의 아사자를 발생시킴으로써, 중공중앙내에서 권위를 상실하게 되자 자기 스스로 개인의 권력을 지켜내고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 낸 책략일 것이다. 그 준비를 위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기초작업이 대약진과 개인숭배에 반대하는 강직한 인품의 군인인 펑더화이(彭德怀)를 군부 책임자인 국방부장과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에서 내쫓고 그 대신에 건강에 문제가 있고 보다 조종이 용이하다고 판단한 린바오(林彪)로 교체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마오쩌둥이 소위 “문화대혁명” 발동 책략을 구상하기 시작한 시기는 최소한 1959년 루산회의 이전부터 일 것이다. 단, 애초에는 방비 차원이었던 마오의 구상이 1962년 “7000인 대회” 이후 류샤오치(刘少奇)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감지한 후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요 경제정책의 입안 업무에서 한 발자국 물러선 마오쩌둥이 국가주석으로 있는 류샤오치와 덩샤오핑(邓小平), 천윈(陈云) 등이 자신과는 다르게 경제를 순조롭게 회복시키는 것을 보면서, 열등감과 시기심, 경계심 속에 류샤오치를 “자본주의의 길을 걷는 지도자” 또는 “후루시초프와 같은 수정주의자”로 비유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 류샤오치도 반발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모순이 발생했다.

덩리첸(邓力群)의 회고에 의하면, “7000인 대회”를 마치고 난 후 어느 날 마오쩌둥이 당중앙회의에서 농촌에 이미 자본주의의 길을 걷는 기층간부들이 나타났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류샤오치는 평상시 태도와 다르게 마오의 주장에 동의하거나 맞장구 치지 않고, 오히려 “농촌의 상황이 복잡하고 적과 나의 모순과 인민내부의 모순도 복잡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날 회의 분위기는 매우 긴장된 상태였고, 마오쩌둥의 성격으로 볼

2) “3반(三反)”, “5반(五反)운동은 1951년말에서 1952년 10월까지, 당정기관 공작인원에 대해 전개한 “반(反)독직, 반(反)낭비, 반(反)관료주의”와 사영공업자에 대해 전개한 “반(反)뇌물, 반(反)탈세, 반(反)절도 및 편취 국가재산, 반(反)태업 및 재료 감소, 반(反)국가경제정보 절도”를 일컫는 투쟁에 대한 통칭이다.

때 그 일을 그냥 넘길리 없고 그때 이미 자신이 후계자로 내정하고 있던 류샤오치를 끌어 내리겠다고 결심했을 것이다.

1965년 1월 중앙정치국에서 농촌업무 23조에 대한 회의를 할 때이다. 마오쩌둥이 발언을 시작한 후 말을 마치지 않았는데 류샤오치가 마오의 말을 자르고 끼어 들어 말했다. 마오는 결국 다시 말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사실 류샤오치에게 감히 마오쩌둥의 말을 중간에 끊고 발언을 제지할 정도의 배짱은 없었을 것이다. 짐작컨대 마오의 발언 중에 불쑥 끼어 든 뒤에 말하다가 마오의 발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그러나 화가 단단히 난 마오는 분을 삭이지 못했고, 그 다음 날 회의에 당 규정을 가지고 와서 “당원은 당회의에서 발언권을 갖는다. 당 규정에도 있다.”고 말했다. 정작 자신은 수 많은 사람들의 발언권은 고사하고, 인권과 생명조차도 경시하고 무시해 온 마오쩌둥이 발언권을 침해 당했다며 못 참고 분노하는 모습은 매우 코믹하기도 하다.

마오쩌둥이 “대혁명”의 명칭 앞에 “문화”라는 단어를 붙인 것은 우선 문화 영역에서 발동시키면서 사람들의 반응과 상황진전에 대해 간을 보겠다는 의도였을 것이다. 마오는 농촌에서 사회주의 교육운동을 전개할 때에도 스스로 가장 자신있다고 여기고, 그래서 자신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사상, 이념 분야에서 일련의 비판운동을 진행하면서 시작했다. 소위 “문화대혁명” 책략 구상은 마오의 커다란 발명이라 할 수 있다. “커다란 발명”은 1962년 9월에 열린 중공 8기 10중전회에서 마오가 소설 “류즈단(刘志丹, 1903-1936)” 문제에 대해 평한 다음과 같은 발언 내용이 연상되어 비유한 것이다. “소설을 이용해서 반당활동을 하려는 것은 커다란 발명이다. 한 정권을 뒤집으려면 먼저 여론을 형성하고 사상 방면의 작업을 먼저해야 한다. 혁명도 그렇고 반혁명도 그렇다.” 마오의 이 발언 이후, 당시 국무원 부총리 쉬중쑤(习仲勋³⁾, 1913-2002), 국가계획위원회 주임 자토후(贾拓夫, 1912-1967), 노동부 부장 마원루이(马文瑞, 1912-2004), 그리고 류즈단의 동생 류징판(刘景范, 1910-1990) 등 류즈단의 근거지가 있던 서북지역 간부 출신들에 대한 조사와 박해가 시작되었다.

마오가 “한 정권을 뒤집으려면 먼저 여론을 형성하고 사상 방면의 작업을 먼저해야 한다.”고 말하고 나서 약 3년 후인 1965년 11월 10일에 자신의 부인 장칭(江青)과 당시 상하이시 당위원회 장춘차오(张春桥)의 조종 하에 상하이시 구정부 당위원회 기관지 문예부문에서 일하던 야오원위안(姚文元)에게 “신편 역사극 ‘해서파관(海瑞罢官)’을 평함”이란 제목의 문장을 야오의 이름으로 상하이에서 발간되는 신문인 “원후이바오(文汇报)”에 투고하게 했다. 이것이 마오가 “문화대혁명”으로 불리고 인식되기를 바랐던 대동란 발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야오원위안의 문장은 당시 베이징시 부시장이자 명나라 역사(明史) 전문 학자인 우한(吴晗)을 실명으로 지칭하며 비판했고, 실제로 중공중앙 영도간부층의 수많은 정책문제상의 서로 다른 의견들과 연관되어 있었다. 야오는 우한이 쓴 “해서파관”이 계급투쟁의 표현이라고 간주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계급투쟁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반드시 사상 영역에서 이런저런 형식으로 반영되고

3) 쉬중쑤(习仲勋)은 현 시진핑 중공 주석의 부친이다.

이런저런 작가들의 펜끝에 반영된다. 이는 작가가 자각하건 자각하지 않건 사람들의 의지로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 법칙이다. ‘해서파관’은 바로 이런 계급투쟁의 형식적 반영이다.”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주시하고 있던 마오쩌둥은 그해(1965) 12월 21일 항저우에서 천보다(陈伯达), 관펑(关锋) 등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야오원위안의 글의 내용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핵심은 파관(罢官)이다. 가정 황제는 해서를 파직했고 나는 1959년에 평터화이를 파직했다. 평터화이도 해서(海瑞)이다. 본래 한 편의 연극 대본이었지만 이제는 당내 어떤 사람들이 당을 공격하면서 정치문제가 되었다.”

1956년 4월, 마오쩌둥은 예술분야에서는 백화제방(百花齐放), 학술분야에서는 백가쟁명(百家争鸣)을 기치로 내건 소위 “쌍백(双百)”방침을 시행한다고 발표하고, 약 1년이 경과한 후부터 그 말을 믿고 발언한 지식인들을 겨냥한 반우파투쟁을 발동한 바 있다. 당시 중공 내부 문건에는 마오쩌둥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훈령도 있었다. “당분간은 주자파들이 날뛰도록 놔두고 그 활동이 정점에 달하고 대어(大魚)들이 스스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시점에 우리는 낚시에 미끼를 걸 필요도 없이 그냥 건져 올리면 될 것이다.” 중공 내에는 아직도 “당시 굴 속의 뱀을 밖으로 유인해 내기 위해 백가쟁명이라는 음악을 연주했을 뿐이었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서술한 문건도 있다.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마오쩌둥은 이미 수년 전부터 자신이 주자파라고 모자를 씌운 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정권을 뒤집기 위한 “대혁명”을 발동하기 위한 구실을 낚기 위해서 떡밥과 낚시줄을 드리우고 있었다. 1959년 4월 5일에 상하이에서 개최된 중공 8기 7중전회에서 마오는 “사실대로 말하고 자신의 결점을 거리낌 없이 말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명조(明朝) 시기에 해서(海瑞)가 파관된 이야기를 거론했고, 또 회의 참석자들에게 평터화이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해서” 이야기를 읽어 보라고 권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이 같은 마오의 발언과 행동이 1959년 루산회의에서 평터화이가 제출한 대약진에 대한 착오를 시인하고 평터화이를 복권시켜주려는 의도로 파악했다. 명조(明朝) 역사 전문가였고 당시 베이징시 부시장 우한(吴晗)도 그렇게 생각했기에, 마오와 고위층의 의중에 부합하기 위한 의도도 곁들여서 총 5장으로 구성된 “해서파관(海瑞罢官)”을 썼을 것이다.

“문화대혁명”의 진행 경과

마오는 이미 1962년부터 장칭을 시켜서 당중앙의 선전과 문예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들을 만나서 베이징시 부시장 우한이 쓴 “해서파관”을 비판해야 한다는 의사를 타진했으나 아무도 호응하지 않았다. 1964년에 장칭이 다시 인민일보 문예부 편집장 리시판(李希凡)을 찾아가서 “해서파관”을 비판하는 글을 써달라고 요구했으나 완곡하게 거절 당했다. 보고를 들은 마오가 분노하면서 “베이징시 위원회는 바늘로 꽃을 틔도 없고, 물썰 틔도 없는 독립왕국”이라고 말

했다. 1965년 2월에 마오는 장칭을 상하이로 보냈다. 장칭이 상하이시 서기 커칭스(柯庆施)가 추천한 장춘차오와 야오원위안을 만났고 야오원위안의 그 글이 상하이에서 발행되는 신문 원후이바오(文汇报)에 게재된 것이다. 마오쩌둥은 짐짓 이 일을 모르는 척 하고 있었다.

한편, 야오원위안의 문장이 상하이에서 발표된 후 10여일이 지나서도 인민일보와 베이징의 각 신문 매체들은 이 문장을 전재(转载)하지 않았다. 이는 베이징시 제1서기인 평전(彭真)이 부시장인 우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1966년 2월초,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 겸 베이징시 위원회 제1서기 평전이 문화혁명 5인소조가 참석한 회의를 개최하고, “당면 학술토론에 관한 보고 요강(二月提纲)”의 초안을 작성하고, 학술 비판중 이미 출현한 “좌경”에 대해 적절한 통제를 시도했다. 평전은 이 초안 문건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토론을 통해서 통과시키고, 다시 당시 후베이성(湖北省) 우한(武汉)에 머물고 있던 마오쩌둥을 찾아가서 보고했다. 당시에 마오는 겉으로는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평전은 마오가 베이징시 부시장 우한이 쓴 “해서파관”을 타깃으로 한 이유는 바로 베이징시 제1서기인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듯 하다. 한편, 장칭은 린바오(林彪)의 지지 하에 상하이에서 부대 문예공작 좌담회를 개최하고, 이 좌담회의 “회의록(纪要)”에 “반당 반사회주의 흑선(黑线)이 우리의 정치를 장악하고 있다”는 내용과 “문화전선상의 사회주의혁명을 한바탕 건결하게 진행해야 한다”라 호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위 “문화대혁명”의 전면적 발동을 결정 및 공포한 회의는 중공중앙이 1966년 5월에 개최한 정치국 확대회의와 8월에 개최한 8기 11중전회이다. 이 두 회의 후에 통과된 “중공중앙 통지(약칭 5.16 통지)”와 “중공중앙 무산계급문화대혁명에 관한 결정”, 그리고 중앙영도기구에 대한 개편은 마오가 기획하는 극좌 방침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주도적인 지위를 부여해 줬다. 이때부터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이라 작명한 10년 내란 대동란이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시작되었고 중국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사진 2> 문화혁명시기 대자보

1966년, 국민경제에 대한 조정을 기본적으로 완성하고, 제3차 5개년계획(1966-70)을 집행하기 시작한 그 해에, 마오쩌둥은 의식형태 영역에서의 비판운동으로 시작한 운동의 창끝을 점진적으로 당중앙의 영도층을 겨냥하는 정치운동으로 발전시키면서 “문화대혁명”을 발동했다. 이것

이 장장 10년간 중국 전국을 내전 동란상태로 몰아 넣었다.

우선, 마오의 조종하에 린바오와 장칭 등이 중앙판공청 주임 양상쿤(杨尚昆)을 포함하여 직무를 박탈했고, 중앙서기처 서기, 국무원 부총리, 해방군 총참모장 뤼루이칭(罗瑞卿)을 “찬군반당(篡军反党)” 등 죄명으로 연금했다. 이어서 1966년 3월말에는 중앙선전부와 베이징시 위원회를 악인을 비호하고 좌파를 억압했다고 질책하고, 제1서기 평전(彭真)과 중앙선전부 부장 루딩이(陆定一)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1966년 5월 4일에서 26일까지 “문화대혁명”을 전국에서 발동시키기 위한 중앙정치국 확대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5월 16일 “중공중앙위원회 통지”(약칭 “五一六通知”)를 통과시켰다. “통지”는 “2월 강요(二月提纲)”를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당, 정부, 군대, 그리고 각종 문화계 내부에 진입한 자산계급 대표인물, 즉 한무리 반혁명 수정주의분자들은 일단 시기만 성숙하면 그들이 정권을 탈취하고, 무산계급 독재를 자산계급 독재로 바꿀 수 있다.” “예를 들면, 후르시초프 같은 인물이 현재 바로 우리의 몸옆에서 자고 있다. 각급 당위원회는 필히 이점에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회의는 평전이 이끌던 문화혁명소조를 철폐하고, 천보다(陈伯达)를 조장, 강성(康生)을 고문으로 하고, 장칭(江青), 장춘차오(张春桥) 등이 부조장을 맡는 “중앙문화혁명소조”를 신설하고, 실제로 중앙정치국으로부터 독립하여, “문화대혁명”을 영도할 수 있는 지휘기구 역할을 담당토록 했다. 그후 최고권력자가 조종하는 이 이상한 “혁명”은 맹렬하게 발동되었다.

대학과 중학교의 학생들이 먼저 수정주의에 조반(造反)하였고, 급속하게 홍위병이 조직되었고, 도처에서 학교의 교장과 서기, 교사들을 적발 비판투쟁(揪斗)을 진행했고, 일부 당정기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중공중앙에서는 류샤오치(刘少奇), 덩샤오핑(邓小平) 등이 대학과 중학에 공작조(工作组)를 파견하여 학교 간부와 협조하여 국면을 안정시키고자 노력했다. 공작조는 활동과정에서 다수 군중의 지지를 받았으나 조반파(造反派) 홍위병들과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운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놓고 당중앙 지도층과 중앙문혁소조 간에 의견대립도 갈수록 첨예해졌다. 이 무렵에 항저우에서 사태를 관망하던 마오쩌둥이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하고 베이징에 돌아왔다. 마오는 류샤오치, 덩샤오핑이 지휘하는 공작조가 실제로는 자산계급의 입장에 서서 무산계급혁명을 반대했다고 당중앙 지도층을 질책하고 공작조를 철폐하라고 지시했다.

마오쩌둥이 더욱 노골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한 것은 1966년 8월 1일에서 12일까지 개최된 중공 8기 11중전회 회의 기간중에 자신이 직접 작성해서 붙인 “사령부를 포격하라, 나의 한장의 대자보”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통해서였다. 이 대자보에서 마오는 “중앙에 자산계급사령부가 있다”고 하면서, 창 끝을 직접 류샤오치와 덩샤오핑에게 겨누면서 대학생과 철부지 중학생 홍위병들을 선동했다. 젊은 시절의 마오가 후난성(湖南省) 농촌조사를 통해서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갈망을 파악한 후 토지혁명투쟁을 시작했듯이, 이제 그는 이미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국가 최고권력

을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해서 젊은 홍위병들의 기존 권위와 기득권자에 대한 갈등과 증오를 부추기고 선동하기 놀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8기 11중전회에서는 운동의 대상, 기열 역량, 방법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문화대혁명” 16조를 통과시켰다.

전면 내란

8기 1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후, 홍위병 운동이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홍위병운동은 처음에는 “4구(四旧)” 타파, 즉, 구(旧)사상, 구문화, 구풍속, 구습관 타파에서 곧 이어 마구잡이식 집털이(抄家), 폭행(打人), 물건파괴(砸物)로 변해 갔다. 무수한 우수 문화유적들이 불살라졌고, 대량의 국가문물이 약탈 당했고, 수많은 지식인과 민주인사, 그리고 간부들이 적발 비판투쟁을 당했다. 홍위병운동으로 인한 사회질서와 민주법제 파괴는 각지의 중공 당조직과 수많은 간부들과 군중들의 불만과 배척을 야기했다. 그러나 그러한 불만과 배척은 “자산계급 반동노선”으로 매도되었다.

1966년 10월초, 중공중앙 중앙군사위원회가 “군(軍)이 대학에서 ‘문화대혁명’을 진행할 것에 관한 긴급지시”를 전달(转发)하고, 중앙당위원회가 영도하는 운동에 관한 규정을 취소한다고 선포했다. 이후 “당위원회를 차버리고 혁명을 일으키자”는 구호 하에, 조반(造反)의 광풍이 공농업(工农业) 영역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운동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10월 상순에서 하순까지, “자산계급 반동노선” 비판을 주제로 하는 중앙공작회의가 개최되었다. 린바오(林彪)와 천보다(陈伯达)는 연설을 통해서, 당내의 서로 다른 의견을 노선투쟁으로 격상시키고, 선동하면서 무정부주의 사조를 부추겼다. 이 회의 후에, “자산계급 반동노선”에 대한 기세등등한 비판 폭풍(风暴)이 전국에서 일어났다. 중앙문혁소조는 조반파가 공격의 창끝을 각급 당정 영도



<사진 3> 문화혁명 시기에 마오쩌둥 어록(红书)을 들고 환호하는 홍위병과 군중

기관에 집중시키도록 책동했고, 곧 이어서 “타도 류샤오치”란 표어와 덩샤오핑을 공격하는 대자보가 출현했다. 중앙과 지방의 수많은 당정 지도 간부들이 적발 비판투쟁(批斗)을 당했고, 기관업무가 마비 및 반(半)마비 상태에 빠지면서 중국 전국이 공전의 혼란상태에 빠졌다.



<사진 4>

문화혁명 당시 적발투쟁대회(批斗) 모습

1967년 1월초에는 장춘차오(张春桥)와 야오원위안(姚文元)의 책략 하에, 상하이시 조반파가 상하이시 정부의 당정 권력을 조직적으로 탈취했고, 마오쩌둥은 이 같은 권력 탈취행위를 긍정하고 지지했다. 그 결과 그로부터 반달 후인 1월 중하순부터 조반파가 중국 전국 각지의 당과 정부의 각급 권력을 탈취하는 소위 “1월 혁명” 폭풍이 중국 전국을 휩쓸었고, 조반파가 주도하는 권력 탈취의 광풍이 수습이 불가능한 상태로 확대되었고 결국 “모든 것을 타도하자(打倒一切)”는 전면 내란(内乱) 상태가 되었다.

한편, “문화대혁명” 발동 후에 중공중앙 지도층 내부와 광대한 간부 군중중에 “좌경”착오와 “극좌” 사조에 대해 다양한 형식의 저지와 항쟁(抗争)이 존재했고 또한 부단히 발전해 왔다. 1967년 1월 19~20일에 개최된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혁명 1세대 원로간부들이 일으킨 “2월 항쟁”이 대표적인 사건이다. 회의에서 예젠잉(叶剑英), 쉬샹첸(徐向前), 니에룽전(聂荣臻) 등 군부내 원로들이 장칭(江青), 캉성(康生), 천보다(陈伯达)가 제기한 “군대도 응당 지방과 같이 문혁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다. 2월 중순에는 저우언라이(周恩来)가 중난하이 화이런당(怀仁堂)에서 주재한 예비회의에서 또 다시 원로 혁명가와 중앙문혁소조 간에 격렬한 투쟁이 벌어졌다. 탄전린(谭震林), 천이(陈毅), 예젠잉

(叶剑英), 리푸춘(李富春), 리선니엔(李先念), 쉬상첸(徐向前), 니에룽전(聂荣臻) 등 원로간부들이 “문화대혁명”이래의 근본적인 문제로 당의 영도와 광대한 원로간부, 군대 안정 등에 대한 필요성 여부 등을 제기하면서, 장칭, 천보다, 캉성, 장춘차오(张春桥) 등이 당과 군부를 대혼란에 빠뜨렸다고 격렬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군부 원로들의 그 같은 행동은 당중앙과 전국을 뒤집어 엎으려는 마오의 의도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마오는 회의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이들 원로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물론 마오의 “비판”은 단순한 비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숙청을 의미했다. 이것이 중공당사에서 “2월 역류”라 부르는 사건이다.

전면적 권력탈취는 파벌성 투쟁을 격화시켰다. 각 조반파(造反派) 조직은 권력쟁취와 이익탈취를 위해서 패거리를 만들고, 격렬하게 투쟁하면서 무수한 분규와 충돌이 발생했고, 잔혹한 무장투쟁 상태로까지 갔다. 1967년 여름과 가을에 시에푸즈(谢富治), 왕리(王力), 장칭 등이 기회를 엿보다가 “공안(公), 검찰(检), 법원(法)을 철저히 때려 부수자”, “여론으로 공격하고 무장으로 방어하자(文攻武卫)” 등 구호를 제출하고 무장투쟁(武斗)을 선동했다. 그 결과, 베이징의 영국외교사무처가 불에 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전후한 수개월간 “문화대혁명” 발동 이래 국가동란이 가장 격렬하고, 사회재난이 가장 심각한 단계에 도달한 시기였다.

그제서야 마오쩌둥은 혼란상태를 통제하기 위해서 군중에게 대연합을 실현하고 간부들을 올바르게 대하라고 호소하기 시작했고, 또한 인민해방군을 파견하여 “삼지양군(三支两军)” 임무 집행을 명령했다. “삼지(三支)”는 좌파조직과 공업과 농업을 지원하라는 것이고, “양군(两军)”은 군대가 통제하고(军管), 대학과 고교생에게 군사훈련을 실시한다(军训)는 것이었다. 즉, 마오는 권력과 군권을 거머쥔 채로 스스로 기획, 조종, 발동시킨 “대혁명”을 이제 거꾸로 자신의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하겠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문화대혁명”이란 “혁명”을 빙자한 마오쩌둥의 한 판 사기쑈에 불과한 것이다. 한편, 마오쩌둥은 선전대를 파견하여 학교에 주둔시키고, 또 만연



<사진 5> 1966년 10월, 마오쩌둥이 천안문에서 홍위병을 접견한 자리에서 악수하는 류샤오치(刘少奇)와 장칭(江青)사이의 마지막 악수. 당시 류샤오치의 당내 지위는 제2위에서 제8위로 떨어진 상태였다

한 무장투쟁을 억제하고, 사회질서를 유지보호하고, 국가재산을 보호하라는 다양한 명령과 포고를 발송토록 했다. 이러한 조치들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으나 정세 악화를 억제하는 데에는 일정한 작용을 했다. 20여 개월 간의 사회대동란과 복잡한 권력탈취 투쟁기간중 중국 전국 29개 성(省), 직할시, 자치구에 앞뒤로 혁명위원회가

건립되었다. 혁명위원회는 당정(党政) 권력이 일체화 합일(合一)된 고도집중 영도체제였다.

1968년 10월 13일에서 31일까지, 중공 9차당대회 준비를 위해 8기 확대 12중전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극도로 비정상적인 상황 하에서 장칭(江青), Kang생(康生), 시에푸즈(謝富治)가 조작중인 류샤오치 문제에 관한 “심사보고”를 비준했고, 국가주석이었던 류샤오치에게 “반역자(叛徒), 내부간첩(內奸), 노동자의 배반자(工賊)”라는 죄명을 덮어 씌우고, “류샤오치를 영원히 출당하고, 당내외의 일체 직무를 철회한다”고 선포했다. 1년후 류샤오치는 허난성 카이펑(開封)에서 억울한 죄를 모두 뒤집어 쓴 채 비참하게 죽었다. 이는 “문화대혁명” 중 최대의 모함사건이다.

“문화대혁명” 발동후 3년이 되던 1969년 4월 1일에서 24일까지 중공 제9차 전국대표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에 출석한 대표는 1,512인이었다. 당시에 전국의 중공 당원수가 2,200만인이었으나, 각 성(省), 직할시, 자치구의 당위원회에서 기층 당조직이 대부분 회복 또는 건립되지 못했고, 절대 다수 당원들이 조직생활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9차 당대표 대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강렬한 개인숭배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린뱌오(林彪)가 중공중앙을 대표하여 정치 보고를 했다. 그 핵심내용은 “무산계급 독재하의 계속혁명 이론”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었다. 보고는 “이 이론의 위대한 공헌”과 “이 혁명의 위대한 업적”이라는 것을 극렬하게 추켜 세웠다. 그러나 중공 입장에서 당을 응당 어떻게 이끌고, 사회주의 경제와 문화 건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문화대혁명” 지도사상 역할을 한 “무산계급 독재하 계속혁명 이론”은 당시 중국의 계급형세나 당과 국가의 정치상황에 전혀 맞지 않았다. 명백한 착오였다. 대회에서 통과된 당장(黨章)에 당원 권리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린뱌오 동지가 마오쩌둥 동지의 친밀한 전우이자 계승자(接班人)”란 말을 총강(總綱)에 기입했다. 이 같은 행태는 이 시기 중국공산당은 완전히 마오쩌둥의 사당(私黨)이었음을 보여준다. 이 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회는 중앙정치국 위원 중 린뱌오와 장칭 패거리에 속하는 이들이 반수 이상을 점했다. 이 대회는 “문화대혁명”의 이론과 실천을 합법화하고 린뱌오와 장칭 등 마오의 신임 속에 “문화대혁명”을 주도해 온 자들의 당중앙에서의 지위를 강화해 주었다.

두번째 단계는 1969년 4월 중공 9차 당대표대회 개최 후 1973년 8월 중공 10차 대표대회까지 기간이다. 이 단계에서 주요 내용은 마오쩌둥이 이제는 세력이 커진 린뱌오와 그 일당을 제거한 것이다. 린뱌오와 가족이 비행기를 타고 국외 탈출을 시도하다가 타고 가던 비행기가 몽골공화국 영내 초원에 추락하면서 몰살된 이 사건은 “문화대혁명”의 실패를 객관적으로 선포한 것이었다. 이후, 자우언라이(周恩來)가 당중앙의 일상업무를 주관하게 되면서 중공중앙의 각 항업무들도 전환되는 계기가 된다. (계속)

참고문헌

- 알렉산더 판초프 외, 심규호 외 옮김(2017), 『마오쩌둥 평전』, 민음사
 프랑크 디콰터, 고기탁 옮김(2017), 『문화대혁명, 중국 인민의 역사 1962-76』, 열린책들
 프랑크 디콰터, 고기탁 옮김(2016), 『마오의 대기근, 중국 참극의 역사 1958-1962』, 열린책들
 연광석 외 역음(2014), 『전리군과의 대화』, 한울아카데미
 왕단, 송인재 역(2013), 『왕단의 중국현대사』, 동아시아
 전리군(첸리쥔)·연광석 옮김(2012), 『모택동시대와 포스트 모택동 시대. 상,하』, 한울아카데미
 필립 판, 김춘수 옮김(2010), 『마오의 제국』, 말·글·빛남
 모리스 마이스너, 김수영 옮김(2004),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1.2』, 이산
 胡哲峰, 于化民(2013), 『毛泽东与林彪』, 新世界出版社
 賈章旺(2012), 『毛澤東從韶山到中南海(下)』, 中國文史出版社.
 中共中央黨史研究室(2011), 『中國共產黨歷史第一卷(1921-1949)上冊』, 中共黨史出版社.
 林濤暉(2008), 『国史礼记-事件篇』, 东方出版中心
 罗平汉(2006), 『当代历史问题礼记二集』, 世界知识出版社
 柯延主編(2004), 『毛澤東生平全記錄(上)』, 中央文獻出版社.
 马于强(2004), 『打开山门迎大军--论袁文才、王佐对井冈山革命根据地的军事贡献』, 井冈山师范学院学报.
 张涛之(1998), 『中华人民共和国演义(上、中、下卷)』, 作家出版社
 中共中央文獻研究室(1996), 『毛澤東傳(上)』, 中央文獻出版社.
 陳志平主編(1993), 『中國革命史』, 中國政法大學出版社.
 中共中央黨史研究室(1991), 『中國共產黨歷史(上卷)』, 人民出版社.
 毛澤東著(1991), 『毛澤東選集第一卷』, 人民出版社.
 薄一波(1993), 『若干重大决策与事件的回顾: 上下卷』, 中共中央党校出版社.



4. 강경의 소중한 역사, 강경화교학교

박경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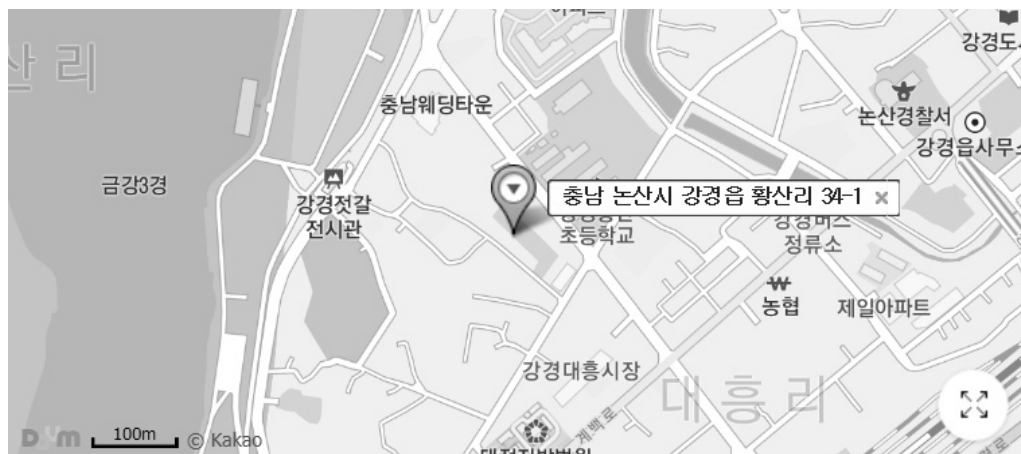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한때 중국어선까지 드나들었던 강경포구

아름다운 포구와 젓갈로 유명한 강경읍은 드넓은 논산평야의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다. 금강 중하류의 경계여서 위로는 공주와 부여와 가깝고 아래로는 장항과 군산이 가까워 일찍이 교통의 요지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젓갈 시장이 자리 잡고 있는 강경읍은 원래 은진면 김포면이었으나 1914년에 논산시로 편입되면서 강경면이 되었으며, 1931년에 읍으로 승격되었다. 1920년에는 충청남도에서 일본인을 제외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던 상업지역이었다.¹⁾

자료에 따르면, 강경읍은 고려 중기 무렵에도 제주에서 미역, 고구마, 좁쌀을 실은 배들이 드나들었고 중국의 무역선들도 비단, 소금 등을 싣고 무역로를 텃다. 한국의 3대 강인 금강이 흐르고, 충청도와 전라북도를 연결하는 중부 지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강경포에는 일찍이 시장이 크게 발달했다. 그래서 강경포에 형성된 시장은 대구, 평양의 시장과 함께 '조선 3대 시장'으로 불리기도 했다.²⁾



<그림 1> 강경화교학교 위치도

자료: 다음 지도

1947년 설립된 강경화교학교(소학)

강경은 1900년대 이후 근대화와 일제 침략으로 일본인이 이곳으로 대거 진출하면서 지역 내 각종 상점과, 건축물, 금융 건물이 세워졌다. 대표적으로 1910년대 세워진 옛 한일은행 건물은 현재 강경역사문화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곳 강경읍에 강경화교학교(江景華僑學校)

1)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강경화교학교 교사와 사택」 참고
2) 위키백과: 「강경읍」 참고

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강경화교학교는 현재 강경읍 황산1길6(황산리)에 위치하고 있다. 구 세무서 뒤편이고 강경읍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황산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다. 1956년에 세워진 이 아담한 건물, 그러나 지금은 폐교가 되어 교사와 사택만 덩그러니 남아있다. 정부는 2007년 7월 3일에 이 건물들을 문화재 제337호로 등록했다.

자료에 따르면, 강경화교학교는 논산의 유일한 화교 학교로써 지역 화교들의 성금으로 설립된 소학교이다. 논산과 강경지역 화교의 힘만으로는 부족해 인근 군산, 연산, 부여, 함열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부산 등지의 화교로부터 성금을 모금해 학교를 설립했다. 1982년 제작된 중수기 현판에 따르면, 강경화교학교는 애초에 ‘江景華僑小學校’라는 명칭으로 1947년에 처음 설립되었다. 설립 초기인 1950년대 학생 수는 약 40~50명 정도였고 1952년에 제1회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건물은 1956년에 건립되었다.³⁾



<그림 2> 강경화교학교 정문과 전경

강경화교학교는 충남의 남서지역, 즉 논산과 부여 지역을 포괄하는 화교 교육의 중심지였다. 1982년까지 약 2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한 때는 학생이 100명 정도에 이르렀으나 이후 점차 감소했다. 그래서 화교학생뿐만 아니라 한국 학생들도 이 학교에 입학하기도 했으나 그것도 여의치 않아 이 학교는 결국 2004년 무렵에 폐교됐다. 강경지역에는 한 때 200여 명의 화교가 살았지만 지금은 거의 떠나고 읍내에 잡화상을 경영했던 노부부 한 쌍만 살고 계신다. 1983년부터 금강하구둑이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이곳을 오가는 배들이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면서 강경읍은 쇠락하기 시작해 화교들도 각자 생계를 찾아 이곳을 떠났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강경화교학교도 문을 닫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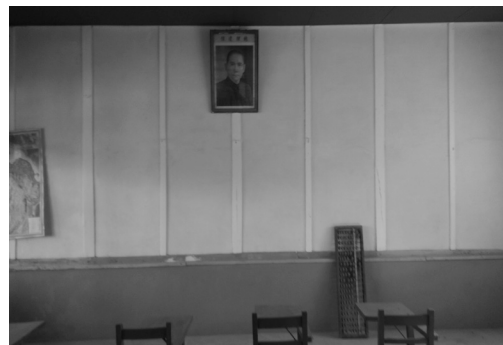
예의염치(禮義廉恥), 퇴색된 장개석의 초상화

3)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강경화교학교 교사와 사택」 참고

강경화교학교의 전체 대지 면적은 1,828㎡이며 교사와 사택 면적은 245.7㎡이다. 본관 건물 이자 교실이 있는 건물은 출입구가 흰색 아치형의 목조 건물이고 복도가 전면으로 배치되어 있다. 본관 건물 정면 입구 위에는 이 학교의 훈시인 ‘禮義廉耻’ 네 글자가 크게 초각되어 있고 그 옆에 蔣中正(蔣介石의 본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그 상부에는 중화민국의 국기가 조각되어 있다. 중화민족으로 후손으로서 어딜 가든 예의염치를 지키며 살라는 장개석의 훈시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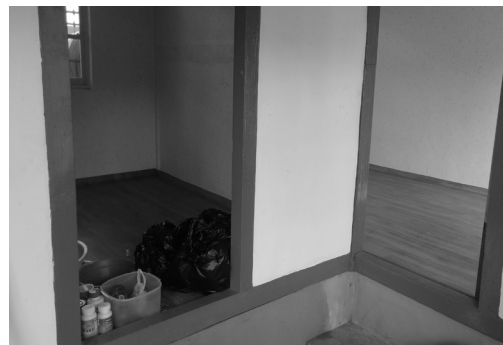
건물 중앙의 복도에서 교무실로 들어오는 입구 위에는 ‘廣厦同歡’(광하동환)라는 편액이 걸려있다. 이 건물이 지어질 때 이웃 지역인 군산의 화교학교에서 보내준 간판인데 그 뜻은 ‘넓은 집을 모두 환영한다.’로 풀이된다. 비록 작은 건물이지만 그 의미와 성취는 크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싶다.

건물 가운데에 교무실이 있고 좌우로 교실이 각각 하나씩 배치되어 있다. 폐교이긴 하지만 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학교에 남아있을 법한 자료 등은 거의 사라진 상태였다. 교무실과 교실 내부에는 몇 개의 액자, 옛날 책상과 의자, 그리고 벽면에는 낡은 장개석의 초상화와 중국지도만이 텅그러니 걸려있다.



<그림 3> 교사 정문의 ‘禮義廉耻’와 교실 안 장개석의 초상사진

이 학교의 교문은 철문으로 되어 있고 그 우측 기둥에는 ‘江景華僑小學’라는 교명이 새겨져 있다. 학교에 들어서면 운동장이 있고 그 우측에는 사택이 있는데 사택은 교사 부부가 살았던



<그림 4> 강경화교학교 사택(좌)과 내부 모습(우)

공간과 독신 교사가 지냈던 공간이 나뉘져 있다. 현재 사택 앞에는 이 학교의 관리를 담당하는 화교부부가 가꾸어놓은 텃밭에 고추 등 농작물이 심겨져 있다. 그리고 교사 맞은편에는 학생들이 놀았던 미끄럼틀이 남아있다. 하지만 이 역시 관리가 되지 않아 잡초만 무성한 상태이다.

충남 서남부지역 화교의 문화적, 정신적 구심점, 강경화교학교

우리나라 화교의 역사는 1882년 임오군란이 발생한 직후 1892년 원세개(遠世凱: 1859-1916)를 위시한 청군 600명이 들어오면서부터이다. 청군과 함께 들어온 많은 청나라 상인들은 그 후 우리나라 각지에 정착하면서 화교의 거주지를 넓혀나갔다. 그리고 화교사회와 문화의 구심점인 화교학교를 세워 중화민족의 전통성을 이어갔다. 1902년 우리나라 최초로 인천화교소학교가 세워졌고, 1912년에는 한성화교소학교가 세워졌다. 이렇게 화교학교도 각지로 확산되어 나갔다.

강경화교학교도 이처럼 우리나라 화교역사의 산물이다. 강경은 일제가 식량과 자원을 수탈하고 일본이 정주지역으로 개발하면서 많은 일본인들이 몰려든 지역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했던 화교들도 대외교역이 활발했던 이곳 강경을 찾아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북에 원산포구가 있다면 남에 강경포구가 있다’고 할 정도로 강경은 새로운 상업과 물류의 기지였다. 그래서 강경에 진출한 화교들은 이곳에서 중화요리, 비단(주단) 등 포목점을 운영하며 상권을 넓혀 나갔다. 배구선수 후인정의 조부도 1920년대 한국으로 들어와 이곳 강경에서 중국음식점을 차려 정착했고 그의 선친도 강경상고에서 배구선수로 활약할 정도로 활동적이었다. 이렇게 모여든 강경지역 화교들은 인근 논산, 부여, 함열, 공주 등에 거주하는 화교들과 뜻을 모아 강경화교학교를 세웠다. 이 학교가 이 지역 화교들의 문화적,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한 것이다.



<그림 5> 강경이 고향인 화교 출신 배구선수 후인정

자료: 마이데일리

충남 화교의 역사, 기록하고 관리하고 보존해야

강경읍내에 거주하는 류경해(劉慶海, 83세) 어르신의 부모도 산둥성 옌타이(煙臺)가 고향이었는데 1930년대에 우리나라로 들어와 인천 등을 거쳐 강경에 정착했다고 한다. 그 후 비단(주단)과 잡화상을 하며 자식을 키웠다. 1883년부터 서울과 인천에 거주하기 시작한 산둥성, 광둥성 출신의 화교들이 주단포목상점을 개점한 것이 중화요리점과 더불어 이후 화교의 주요 생계수단이었는데 류경해 어르신의 선친도 이곳 강경으로 들어와서 주단포목상을 시작했고 그것을 류경해 어르신이 이어온 것이다.

현재 대만에 거주하고 있는 그의 아들이 그와 그의 아내를 대만으로 모시고자 하나 그는 강경이 살기 좋아 강경에 남아 있다고 했다. 현재 강경읍내에서 유일한 화교인 그와 그의 아내는 강경화교학교를 관리하며 여생을 보내고 있다. 우리나라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대만국적 화교이기 때문에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는 하지 못한다는(지방선거는 가능) 그는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평생을 한국에 정을 붙이고 살았다.

이제는 폐교가 되어 잡초만 무성한 강경화교학교와 텅 빈 교실. 우리가 무심한 사이 이방인으로 살아왔던 신산했던 그들의 삶을 기억해 주는 이는 없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학교 건물 앞에 크게 새겨놓은 ‘禮義廉耻’가 우리에게 하는 훈시인 것 같아 부끄럼이 앞선다. 충남에는 강경 외에도 천안, 아산, 예산, 광천 등에 화교학교가 있었다. 하지만 이들 학교도 강경화교학교와 다들 바가 없을 것 같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관리하고 보존해 나갈 필요가 있고 향후 이를 기반으로 화교네트워크를 통한 충남도 대중국 교류 활성화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중규(2010). 화교학교의 역사를 통해서 본 화교문화의 형성과 변화. 지방사와 지방문화, 13(1), 356-402.

김혜미·이병철·이진경(2017). 한국 화교의 정체성 유형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1), 125-146.

아주경제(2017.08.17.). 한국화교 130년사2-화교 주단포목상의 흥망성쇠.

위키백과: 강경읍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강경화교학교 교사와 사택

「충청중국포럼 소식」

제32회 충청중국포럼

제32회 충청중국포럼 개최 중국 일대일로 정책과 화교네트워크

- 지난 6월 27일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에서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이정희교수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화교네트워크”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이번 포럼에는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 충남도 정명복 안보정책자문관, 도 및 각 시군 중국교류 담당 공무원, 기타 중국의 일대일로와 화교네트워크에 관심 있는 각계 인사가 참석하였다.



<그림1> 이정희 교수 발표사진 및 단체사진

- 이번 포럼에서는 화교네트워크를 알아보고, 중국 일대일로 사업과 화교네트워크를 활용한 충남의 대중국 교류방안을 논의하였다.

· 일대일로 정책의 핵심이념은 정책 소통, 인프라 연결, 무역 확대, 자금 조달, 민심 상통이며 화교네트워크는 주로 화교공동체간의 경제적 통합, 문화적 교류, 정치적 결합 등에 걸쳐 형성된다고 하였다.

· 중국 개혁개방 이후 화교·화인 인구 증가속도가 상당히 빠르며 주로 동남아 지역에 많이 분포됐는데, 이는 광둥성(广东省)과 푸젠성(福建省) 농민들이 이주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화교들은 주로 산둥성에서 건너왔다고 하였다.

· 국내화교는 주로 인천지역 화교활동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인천지역에서는 주로 화교동향회, 중화회관(중화상회), 화교학교를 통해 화교네트워크가 형성되었으며, 이 외에도 종교네트워크나 비밀결사 네트워크를 통해 화교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고 하였다.

- 화교·화인의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세계화상대회가 아주 유명한데 1991년 싱가포르에서 첫 개최 후 2년마다 개최되는 경제올림픽이라고 하였다. 2005년 서울에서 제8차 세계화상대회가 개최된 바 있으며 28개 국가에서 참가하였고 한국의 중화총상회도 참가하였다고 말했다.
- 구 화교네트워크는 상당한 결집력이 있지만 폐쇄적이고, 신 화교네트워크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 구 화교들보다는 결집력이 약한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한국의 화교네트워크 활용방안으로 중화총상회, 화교협회, 다문화가정, 화교연구자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발표가 끝난 후 종합토론에서는 도 및 시군 중국교류 담당자들의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

- 우선,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대만국적 화교(구 화교)의 중국대사관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정희 교수는 “구 화교단체는 세계무대에서 날로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고 중국 입국 시에도 비자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현재는 중국대사관에 단체로 등록해 대만과 중국 양쪽을 모두 활용하는 양다리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하였다.
- 충남연구원 송영현 박사는 화교네트워크가 일대일로 정책을 활용하여 성공을 이뤄낸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이정희 교수는 “아직은 물위로 올라온 사례나 연구가 없다. 한국대사관에서 화교를 초청하여 일대일로 관련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발전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하였다.
- 충남연구원 박경철 박사는 충남이 화교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정희 교수는 “강경소화교를 거듭 강조하면서 실제로 방문해보니 외관, 내부 모두 잘 보존이 되어 있었는데 그냥 방치하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이를 활용하여 대전, 충남권 화교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 마지막으로 당진시 주무관은 화교가 향후 세계 정치·경제 등 영역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화교는 향후 중국 전통문화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민족문명의식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화교네트워크는 문화와 민족정신으로 집결하게 되고 그 힘은 더욱 커질 것이다”고 하였다.

※ 본 포럼소식에서 사용한 중국 지명은 기본적으로 중국어 발음을 준용하여 표기하였으나 한자의 한국어 발음이 익숙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표기함

문의 :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041-840-1175, quanchfu@cni.re.kr)

■ 중국동향과 진단 발간목록(2015.6~2018.8)

호수	발간월	주 제
제1호	2015년 6월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一帶一路)건설과 중국의 국토발전촉
제2호	2015년 7월	신상태 시대 중국경제와 충남의 대응과제
제3호	2015년 8·9월	징진지 지구 일체화 정책 추진 동향과 충남의 시사점(합본호)
제4호	2015년 10월	중국 삼농문제의 연원과 관련정책 동향
제5호	2015년 11·12월	산둥성 남색경제 발전전략(합본호)
제6호	2016년 1·2월	중국 13차 5개년 계획의 성격과 주요 내용
제7호	2016년 3·4월	한중 FTA 발효가 충남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제8호	2016년 5·6월	방한 '요우커' 충남 유치전략
제9호	2016년 7·8월	중국 구이저우성의 현황과 충남의 대응전략
제10호	2016년 9·10월	환황해권시대 충남의 대(對)중국 전략
제11호	2016년 11·12월	중국내 한중산업단지의 설치 동향
제12호	2017년 3·4월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준비 현황과 과제
제13호	2017년 5·6월	중국 대기오염의 현황과 시사점
제14호	2017년 7·8월	중국 빅데이터 산업의 시장 동향과 시사점
제15호	2017년 9·10월	생태문명 전략과 농촌 개발: 중국 현대 농업정책의 해석
제16호	2017년 11·12월	중국 수산업의 최근 발전 동향
제17호	2018년 1·2월	중국 전기자동차 발전 현황과 시사점
제18호	2018년 3·4월	2018년 중국 양회(兩會)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
제19호	2018년 5·6월	충남의 대중국 수출입 구조변화와 시사점 : 1차 산업
제20호	2018년 7·8월	충남 시·군의 대중국 수출입 구조변화와 시사점 : 1차 산업

※ 발간된 내용은 충남연구원 홈페이지(www.cni.re.kr)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